

지역 매아리

김제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보고회

김제시는 시민중심 평생학습도시 육성을 위해 7일 제2차 김제시 평생교육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김제시 미래 평생교육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박준배 김제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평생교육협의회 및 평생교육기관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으며, 30여명의 학습 요구조사, 평생학습 실무자 FGI 및 중간 보고회를 거쳐 제시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수립된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최종보고회 자리가 마련됐다.

이번 최종보고회에서는 연구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 전북연구원과 책임 연구원인 서재복 교수로부터 용역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각 분야 시민 교육 현장에 있는 관련 실과소 및 평생교육 관계자로부터 지역 학습환경과 요구도 분석, 평생교육 참여 실태 전수조사를 토대로 작성한 김제시 평생교육분야 중장기적 발전을 위해 비전수립, 주요 추진과제 발표하고 실천적이고 지속 발전이 가능한 평생교육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실행방향과 정책비전을 함께 제시했다.

김제시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용역은 2006년 평생학습도시 지정이후 급변하는 사회환경과 저출산, 인구고령화 등 변화무쌍한 환경에서 나와 지역이 함께 성장하고 건설적 미래설계를 지원하기 위한 해법을 평생교육에서 찾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 분야의 중장기적 정책 기조 설정, 비전수립, 학습의 일상화를 위한 방안 모색을 위해 추진하게 되었으며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방치슬레이트 처리 지원

김제시 환경과(과장 오형석)는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 및 석면으로부터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보관 및 방치슬레이트 처리 지원을 추진한다.

보관슬레이트는 자연재해 등으로 떨어진 슬레이트들을 시민들이 보관하고 있는 것이고, 방치슬레이트는 하천변, 도로가 등 불법 투기되어 버려진 슬레이트들을 의미한다.

한때 고가 급은 불판으로까지 사용됐던 슬레이트는 석면이 함유되어 있어 2009년부터 사용이 금지되었으며 철거시에는 지정된 전문 업체를 통해서만 철거가 가능하다.

김제시에서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슬레이트 주택 1,933동을 철거했으며 올해 7억9812만원을 투입하여 334동의 주택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였으며, 또한 2회 추경에 반영된 순수 시비 3억원의 예산으로 보관 및 방치슬레이트 21,545㎡를 처리할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 신중년 일자리지원 탄력

행정안전부 공모 선정... 6억원 사업비 지원 고용서비스 강화

완주군이 행정안전부 신중년 일자리지원센터 공모에서 최종 선정됐다. 완주군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된 신중년 일자리지원센터 공모에 최종 선정돼 시설비 3억과 자체 프로그램 운영비 3억원 등 총 6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됐다고 7일 밝혔다.

신중년 일자리지원센터는 행정안전부 센터 조성 필요성 시설투자를 지원하고 지자체가 운영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다.

군은 공모선정을 통해 지원받는 사업비로 중소도시 완주형 모델을 적용한 통합 일자리센터를 조성하고 관내 신중년층을 대상으로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신중년은 주된 일자리를 퇴직하고 재취업이나 노동시장 은퇴를 준비 중인 5060세대를 말하며, 2018년 4월을 기준으로 완주군 내 50~64세 신중년 인구는 2만 2천여명으로 완주군 전체 인구의 약 23.3%를 차지하고 있다.

군은 신중년 일자리 지원센터 신설과 함께 완주군 대표일자리 센터인 로컬 잡 센터, 여성 새로일하기 센터, 군 일자리센터를 한 곳에 집적해 일자리 정보를 찾는 구직자들에게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다.

이를 통해 신중년에 특화된 인생 재설계 교육, 경력개발 프로그램, 사회공헌형 일자리사업, 커뮤니티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한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완주군의 탄탄한 산업을 일구어 낸 신중년 근로자들이 퇴직 후에도 구직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모색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주군은 퇴직 인력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해 지역 내 문제를 해결하는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 공모에도 참여해 총 2억 8천만원 규모의 일자리 사업을 추진 중이다.

참여자들은 도서관, 스포츠 박물관을 비롯한 완주군 전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완주=이중복 기자

완주군 "자동차의무보험 가입은 필수"

과태료 발생 최소화·무보험운행 차량 근절 앞장

완주군이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홍보를 강조하고 나섰다.

완주군은 군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무보험운행 차량을 뿌리 뽑고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처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의무보험을 반드시 가입하고 차량을 운행해야 한다. 의무보험 미가입자에게는 최고 230

만원(비사업용 90만원)의 과태료가 처분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검찰에 기소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완주군은 장기적 경기침체와 실업난, 대포차 유통 등으로 의무보험 미가입 및 무보험운행사건이 최근 들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의무보험가입 마을홍보 △과태료 납부 안내 △무보험운행사건 소재지 집중

수사 등을 강화하고 있다.

군은 올해 9월말 기준, 자동차의무보험에 자연·미가입한 차량 2582대에 대해 1억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무보험운행이 적발된 197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하고 12건에 대해 48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했다.

신세희 도로교통과장은 "자동차의무보험가입에 대한 대민홍보를 통해 과태료발생을 최소화하고, 군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특별사법경찰관의 신속·정확한 수사 활동을 강화해 무보험운행 사범 근절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중복 기자

김제 두월노을마을축제 '꽃길인생' 성황

인권캠프·논두렁영화제·주민하복패션쇼 등 프로그램 운영

제3회 두월노을문화축제가 이틀간 진행, 인권캠프, 논두렁영화제, 주민하복패션쇼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운영했다.

김제시 금구면 두월노을마을(위원장 송용석)이 최근 제3회 두월노을문화축제를 개최하여 지역주민 및 관광객들에게 호응을 얻었다.

두월노을마을에서는 김제지평선축제에서 마을로 이어지는 축제를 지향하며 시골마을의 정취를 느끼며 주민들이 행복한 축제를 개최하고자 2017년부터 문화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제3회 두월노을문화축제는 첫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내 삶 속 꽃피는 인권캠프는 지역주민을 비롯해 장애인, 아동, 노인들이 함께 인권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며, 인권특강과 자기주장 발표대회 등 다양한 체험을 통해 삶 속에서 인권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

또한 한밤에 개최된 논두렁영화제에서는 '택시운전사'를 상영하여 인권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둘째 날은 '꽃길인생'을 주제로 축

제가 펼쳐졌다. 마을주민들의 행복한 꽃길 인생을 응원하는 의미를 담아 주민 풍물공연, 꽃길인생 한국화 퍼포먼스, 주민하복패션쇼, 외부초청공연, 전래놀이대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송용석 위원장은 "마을과 인권, 문화를 접목하여 준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시고 즐거운 한때를 보낸 듯해서 뿌듯하고 감사하다"고 축제 개최 소감을 전했다.

제3회 두월노을문화축제는 두월노을마을을 비롯하여 (사)김제도농협력사업단, 김제공취합리 네트워크협의체 등이 함께 준비하고 개최했으며, 행사주체들은 주민주도의 농촌관광콘텐츠를 개발해 지속 가능한 농촌의 삶을 고민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와 원예농협이 공동으로 지평선축제 기간 동안 지역 우수농산물 부스를 운영했다.

지평선축제 지역 우수농산물 홍보

취약계층이동 193세대에 전시 농산물 기증

김제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와 원예농협이 공동으로 지평선축제 기간 동안 지역 우수농산물 부스를 운영하면서 전시한 농산물을 기증하는 행사를 축제 마지막날인 6일 진행했으며 이는 취약계층이동 193세대에 전달하여 따뜻한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이번 행사에서 사과, 포도 등 지역 농산물과 사과즙, 고구마 말랭이 등의 농산물 가공품을 총 합하여 약 25개의 품목 대상으로 관광객들에게 설명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펼쳤으며, 사과즙과 지역에서 나온 쌀을 가공한 떡 등을 시식으로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

김광식 원예농협조합장은 "지역 대표 축제에서 우리 지역의 우수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어서 뿌듯하고, 지역 아동들에게 맞춤형 우리 농산물을 전달할 수 있어서 뜻깊은 행사였다"고 밝혔다. 김병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이번 전달식에서 축제기간동안 우수산물 부스를 찾아주시는 김제 시민 및 관광객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김제시는 항상 노력을 펼쳤으며, 사과즙과 지역에서 나온 쌀을 가공한 떡 등을 시식으로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

/김제=곽노태 기자

'인간, 기생충에게 배우다' 강연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 지평선아카데미에 초청

제507회 김제지평선아카데미는 오는 10일 오후 3시 김제시청 지하대강당에서 기생충박사로 잘 알려진 단국대 의과대학 서민 교수를 초청하여 '인간, 기생충에게 배우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친다.

기생충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기생충과 공존하는 인간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내며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활용해 해롭지 않은 기생충에 대해 알기 쉽게 전달하는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대 의대 학사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에서 기생충학 박사학위 취득한 서민 교수는 '서민의 기생충열전', '서민적 글쓰기' 등 다수의 저서를 보유한 베스트셀러 작가로 tvN 어쩌다 어른, KBS 지식기부 콘서트 등

여러 방송을 통해 기생충학의 대중화에 힘써왔다. 더불어 이 날은 성덕면 주민들과 함께 참여하는 '지평선아카데미 체험의 날'로 성덕면 소개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인 성덕면 요가 교실과 교육문화회관의 노래교실을 함께 하며 강연분위기를 한층 높일 것이다.

서민대 인제양성과장은 "이번 강좌로 기생충이 해로운 존재라는 편견을 깨고 기생충을 통해 우리네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유쾌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배움으로 함께 행복하고 소통으로 하나 되는 김제 지평선아카데미 강연은 별도의 신청 없이 김제시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Advertisement for NK Project N-1. It features a woman holding a bottle of N-1, with text in Korean: '우리가족 면역을 생각한 NK프로젝트 N·1', '엔원', '신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NK 프로젝트 N·1', '특허받은 유산균으로 만든 기능성 발효유 NK프로젝트 N·1', 'N·1이 NK세포에 주목합니다.' There are images of N-1 bottles and a logo for '푸르밀'.